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9, Vol. 28, No. 3, 695-708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역할*

서 수 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중인지매개모델(Seo & Kwon, 2005b, 2005c)은 일차분노사고와 이차분노사고가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 내담자 209명과 청소년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일차적 분노사고는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었으며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서수균과 권석만(2005b, 2005c)의 이중인지매개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차적 분노사고가 공격성 유발의 인지적 과정에 있어 가장 근접한 요인(proximal factor)이며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기반을 둔 분노조절프로그램(서수균, 권석만 2005c)이 청소년 환자 집단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이중인지매개모델,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비합리적 신념, 공격성

---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수균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Tel : 051-510-2125 / Fax : 051-581-1457 / E-mail : sgseo@pusan.ac.kr

www.kci.go.kr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격성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김교헌, 2000; 김교헌, 전겸구, 1997; Gentry, Chensney, Gary, Hall & Harburg, 1982; Greer & Morris, 1975; Hazaleus & Deffenbacher, 1986; Novaco, 1979; Rosenman, 1985; Spielberger & London, 1982). 반사회적/경계선적/자기애성 성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등은 공격성을 주요 증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들이며, Eckhardt와 Deffenbacher (1995)는 세 유형의 분노장애(분노기분을 수반하는 적응장애, 상황성 분노장애, 범상황성 분노장애)를 제안한 바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서수균과 권석만(2005b, 2005c)은 분노발생 과정에 대한 인지모델로 Beck의 인지매개이론을 정교화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Beck에 따르면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역기능적 신념과 우울 증상 사이를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고 있다(Beck, 1967; Beck, Rush, Shaw, & Emery, 1979). 인지매개이론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바 있다(조용래, 1998; 조용래, 원호택, 1996; Beck, 1976; Beck, Emery, & Greenberg, 1985; Beck & Weishaar, 1989; Kwon, 1992). 분노에 대한 주요 인지이론들은 분노유발 과정에 두 가지 구별되는 인지적 평가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Lazarus, 1991). Deffenbacher 및 McKay(2000)와 Lazarus(1991)는 이를 일차평가와 이차평가로, Beck(2000)은 이를 의미부여와 이차해석으로 일컬었다. 서수균(2004)은 이 두 평가과정의 인지적 산물인 자동적 사고를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로 명명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서수균과 권석만(2005b)의 연구에 따르면, 일차적 분노사고가 이차적 분노사고를 매개하지 않고 역기능적인 분노를 직접 예언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은 일차적 분노사고를 거쳐 이차적 분노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차적 분노사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차적 분노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서수균과 권석만은 후자의 경로를 분노가 증폭되는 경로로 보았다. 요약하면, 서수균과 권석만(2005b, 2005c)은 분노유발 상황에서 보이는 자동적 사고를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로 구분하고 이 두 분노사고가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하고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중인지매개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기억 속에 조직하고 저장하는 일종의 인지구조로, 외부자극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권석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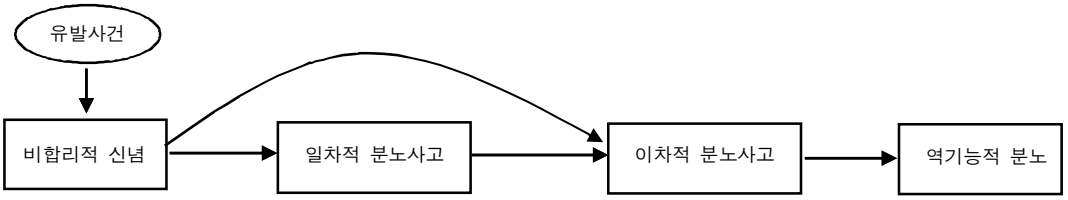

그림 1. 이중인지매개모델

www.kci.go.kr

1995; 조용래, 1998; Ingram & Kendall, 1987; Kwon, 1992). 학자에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으로 불리기도 하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린 시절의 중요 경험들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Ellis는 핵심 비합리적 신념으로 절대적인 강요성과 당위성, 파국화, 약한 인내력,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멸 등을 제안한 바 있다(Ellis & MacLaren, 2005). 비합리적 신념은 절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특징을 보이며, 이 신념에 어긋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적 경험이 초래된다(Ellis & MacLaren, 2005).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도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고경희, 2000; 김인희, 2000; 서수균, 2004; Douglas, 1991; Lopez & Thuman, 1986). 분노와 특히 관련이 높은 비합리적 신념으로는 파국화, 완벽주의, 높은 인정욕구, 약한 인내력, 무력감 등이 보고된 바 있다(Deborach, 1999; Deffenbacher & Hogg, 1986; Zwemer & Deffenbacher, 1984).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해서 GABS-K(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Korean version)(서수균, 2009)를 사용하였다.

자동적 사고는 유발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생성된 일종의 인지적 산물로, 상태 의존적이며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Ingram & Kendall, 1987).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종의 자동적 사고이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사고로 흔히 대처양상을 반영하는 충동이나 행동, 심리 상태로 이루어진다. “나를 무시한다.”, “너무 부당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일부러 날 괴롭힌다.” 등은 일차적 분노사고에 해당되는 반면에, “저런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한 번 혼나야 한다.”, “울고 싶다.”, “한 대 패주고 싶다.” 등은 이차적 분노사고에 해당된다. 인지적 오류나 왜곡은 이차적 분노사고보다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더 많이 나타나며, 분노상황에서 보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은 이차적 분노사고와 더 관련된다.

분노 발생 과정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은 서수균과 권석만(2005b, 2005c)에 의해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미 검증된 바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차적 분노사고가 분노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일차적 분노사고는 반드시 이차적 분노사고를 매개해서 분노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분노감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었다. 한편 비합리적 신념은 일차적 분노사고를 통해서 이차적 분노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 이차적 분노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일차적 분노사고는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노가 유발되는 두 가지 인지적 경로를 가정하게 하며, 서수균과 권석만(2005b)은 이러한 두 경로를 분노발생 경로와 분노증폭 경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비합리적 신념 →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분노감’ 경로는 분노발생경로를 나타내며, ‘비합리적 신념 → 이차적 분노사고 → 분노감’ 경로는 특히 분노가 증폭되는 과정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Buss와 Perry(1992)는 공격성의 세 차원으로,

www.kci.go.kr

행동적 차원인 신체적/언어적 공격행동, 정서적 차원인 분노감, 인지적 차원인 적대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AQ(Aggress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을 공격성의 세 가지 성격 특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다른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도 일관되고 있다(Martin, Watson, & Wan, 2000; Spielberger et al., 1985). 서수균과 권석만(2005b)의 이 전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세 차원 중에서 정서적 요소인 분노감에만 초점을 두고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분노사고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분노사고는 분노감뿐만 아니라 적대감과 공격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서수균(2004)의 연구에서도 분노사고가 적대감이나 공격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성격특질인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 내담자 집단과 청소년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해 보고자한다.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한 이전 연구들(서수균, 2004; 서수균, 권석만, 2005a, 2005b, 2005c)이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연구는 청소년 환자 집단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서수균과 권석만(2005c)은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기반을 둔 분노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만약 청소년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중인지매개모델이 지지된다면, 서수균과 권석만(2005c)이 개발한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기반을 둔 대학생 내담자용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청소년 환자용으로 변형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험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 집단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서 정서적 및 인지적 분화가 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격충동이나 분노감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크다. 분노 같이 흥분 수준이 높은 감정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파괴적인 분노 조절을 도울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을 포함하는 성격특질로서의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먼저 대학생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 외래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먼저 분노감에 초점을 두고 검증되었던 이중인지매개모델이 공격성에 적용했을 때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지를 확인해 보고, 청소년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해 봄으로써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청소년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도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대학생 내담자 집단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내담자 집단의 공격성 유발 과정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참여자

국내 대학 상담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중인 대학생 209명(남: 85명, 평균연령=25.61 (SD=

www.kci.go.kr

5.01); 여: 124명, 평균연령=24.87 (SD=4.43))을 대상으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공격성 질문지(AQ-K), 일반적 신념 및 태도 척도(GABS-K)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Primary Anger-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로,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11문항)'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9문항)'이라는 2 요인 구조를 보였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일치하지 않음, 2: 약간 일치함, 3: 어느 정도 일치함, 4: 상당히 일치함, 5: 거의 정확히 일치함)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서수균, 권석만, 2005a).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로, 타인비난/보복(19문항), 무력감(7문항), 분노통제/건설적 대처(8문항)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타인비난/보복, 무력감,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하위척도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6, .78, .75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세 하위척도 중에서 타인비난/보복과 무력감 하위척도는 역기능적인 이차적 분노사고로 명명된다. 이에 비해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는 분노를 완화시키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사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이차적 분노사고만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 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체 척도(27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6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Korean version: GABS-K)

GABS-K는 DiGiuseppe, Leaf, Exner와 Robin (1988)이 개발한 GABS를 서수균(2009)이 번안한 것으로, 5개의 비합리적 신념 하위척도(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공정성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합리적 신념 하위척도들의 총합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중간이다, 4: 동의한다. 5: 강하게 동의한다)상

www.kci.go.kr

에서 평정되었다. 서수균(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척도(36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자료분석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세 조건이 충족된 뒤에,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사라지면 이는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완벽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 →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공격성'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두 개의 하위모델로 나누었다. 즉 '비합리적 신념 →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와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공격성' 모델로 나누어서 Baron과 Kenny(1986)의 제안에 따라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대학생 내담자 집단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공격성 유발 과정에서의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를 대학생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표 1에 따르면 Baron과 Kenny(1986)의 세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일차적 분노사고를 통제한 후에 이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설명량이 16.7%에서 3.1%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일차적 분노사고가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를 이차적 분노사고가 매개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요구한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이차적 분노사고를 통제한 뒤에

표 1. 일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change	F change	*Beta*	t
이차적 분노사고	비합리적 신념	.167			.41	6.47^{***}
일차적 분노사고	비합리적 신념	.273			.52	8.84^{**}
이차적 분노사고	일차적 분노사고	.233		63.24^{***}	.37	5.35^{*}
	비합리적 신념	.264	.031	8.82^{*}	.21	2.97^{*}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표 2. 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change	F change	*Beta*	t
AQ-K	일차적 분노사고	.103			.32	4.90^{***}
이차적 분노사고	일차적 분노사고	.233			.48	8.00^{***}
AQ-K	이차적 분노사고	.389		132.59^{***}	.61	9.86^{***}
	일차적 분노사고	.390	.001	.19	.03	.44

$^{***}p < .001$.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일차적 분노사고의 설명량은 10.3%에서 0.1%로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0.1%의 설명량은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F(1, 207)=.192$, $p=.662$. 이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사고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에서 이차적 분노사고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 연구(서수균, 권석만, 2005b, 2005c)에서 제안된 이중인지매개모델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연구 2. 청소년 환자 집단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 유발 과정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검증해 보는 것으로, 이중인지매개모델이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 지지된다면 이는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근거해서 대학생용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5c)이 개발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청소년 수준에 맞게 수정해서 청소년 환자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중인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외래환자 50명(남: 32명, 평균연령=15.82(SD=2.36); 여: 18명, 평균연령=16.38(SD=2.45))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 질문지들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주로 학업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결 과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일차적 분노사고가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제안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www.kci.go.kr

표 3. 일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change	F change	*Beta*	*t*
이차적 분노사고	비합리적 신념	.421			.65	4.43^{***}
일차적 분노사고	비합리적 신념	.390			.63	4.08^{**}
이차적 분노사고	일차적 분노사고	.462		19.77^{***}	.44	2.54^{*}
	비합리적 신념	.564	.102	5.15^{*}	.40	2.27^{*}

$^{*}p < .05$, $^{**}p < .01$, $^{***}p < .001$.

표 3에 제시하였다. 표1에 따르면 Baron과 Kenny(1986)가 요구한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일차적 분노사고를 통제한 뒤에 이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설명량이 42.1%에서 10.2%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일차적 분노사고가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학생 내담자 집단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하지만 일차적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의 이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설명량을 비교해 보면, 대학생 내담자 집단은 26.4%인데 반해서 청소년 환자 집단은 56.4%로 대학생 내담자 집단에 비해서 청소년 환자 집단이 두 배가 넘게 높았다. 이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 내담자 집단보다 청소년 환자 집단의 이차적 분노사고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역기능적인 분노사고를 통제하는 인지적 개입이 대학생 집단보다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 더 유용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를 이차적 분노사고가 매개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앞에서와 같이 Baron과 Kenny(1986)가 요구한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이차적 분노사고를 통제한 뒤에 일차적 분노사고의 설명량은 29.8%에서 1.3%로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1.3%의 설명량은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F(1, 35)=.976$, $p=.33$. 이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를 완벽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차적 분노사고

표 4. 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change	F change	*Beta*	*t*
AQ-K	일차적 분노사고	.298			.55	4.07^{***}
이차적 분노사고	일차적 분노사고	.415			.64	5.26^{***}
AQ-K	이차적 분노사고	.505		36.67^{***}	.62	4.07^{***}
	일차적 분노사고	.518	.013	.98	.15	.99

$^{***}p < .001$.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www.kci.go.kr

와 일차적 분노사고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량을 비교해 보면, 대학생 내담자 집단은 39%인데 반해서 청소년 환자 집단은 51.8%로 대학생 내담자 집단에 비해서 청소년 환자 집단이 12.8%가 더 높았다. 이는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역할이 대학생 내담자 집단보다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 더 큼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사고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에서 이차적 분노사고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노감 발생과정에 관한 이전 연구들(서수균, 권석만, 2005b, 2005c)에서 지지된 이중인지매개모델과 부합되는 결과로, 이중인지매개모델이 분노감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설명하는데도 적절하고 청소년 환자 집단에도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5b, 2005c)이 분노감 유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제안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공격성으로 확장해서 청소년 외래환자와 대학생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공격성 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서의 이중인지매개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도 이중인지매개모델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서수균과 권석만(2005c)이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근거해서 개발한 대학생용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청소년 환자 집단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험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분노감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은 공격성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었다. 즉,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를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가 순차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는데, 일차적 분노사고는 비합리적 신념과 이차적 분노사고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었으며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공격성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공격성 발생과정에 두 경로, 즉 분노발생과정(비합리적 신념 →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공격성)과 분노증폭과정(비합리적 신념 → 이차적 분노사고 → 공격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이중인지매개모델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던 이중인지매개모델이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기반을 둔 서수균과 권석만(2005c)의 대학생용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청소년 수준에 맞게 수정되면 청소년 내담자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이 공격성을 설명해 주는 양이 대학생 내담자 보다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 훨씬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격성 유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는 치료적 개입이 대학생 내담자 보다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 더 유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수균과 권석만(2005b, 2005c)은 분노감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횡단적 및 종단적으로 검증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환자 집단과 대학생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대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을 횡단적으로 검증해 보

www.kci.go.kr

았다. 이와 같이 이중인지매개모델은 대학생과 대학생 내담자, 그리고 청소년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횡단적 및 종단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이중인지매개모델이 분노감과 공격성 유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모델로서 다양한 집단에서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지지된 이중인지매개모델에 따르면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인지적 요인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Distal 요인인 비합리적 신념과 proximal 요인인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가 그것이다.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중에서도 이차적 분노사고가 특히 공격성을 가장 근접해서 일으키는 인지적 요인으로 여겨지며, 공격성의 즉각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이차적 분노사고의 습관적인 활성화나 반추를 통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여러 인지행동치료자(Beck, 1967, 2000; Ellis & MacLaren, 2005)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분노사고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제공하는 distal 요인인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검증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은 공격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인지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제안해 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 환자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아서 모델 검증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인 공분산구조분석을 활용할 수 없었다. 둘째, 이차적 분노사고에 비해서 일차적 분노사고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인지매개모델에 따르면 공격성 유발 과정에서 이차적 분노사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일차적 분노사고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게 여겨지고 있다. 일차적 분노사고가 좌절이나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분노나 공격성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과도 관련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일차적 분노사고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자동적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를 특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심리적 기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이중인지매개모델이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도 지지됨으로써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청소년 환자 집단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학생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 수준이 다르고 공격성 수준이나 공격성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양상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중인지매개모델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청소년 환자 집단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환자 집단에 대한 효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고경희 (2000). 특성분노, 분노표현 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석만 (1995). 정신병리와 인지 I :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한국심리학회 편)(p.49-95).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자료집.

김교헌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81-192.

www.kci.go.kr

김교헌, 전겸구 (1997). 분노, 적개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79-95.

김인희 (2000).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수균 (2007).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39-250.

서수균 (2009). 한국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13-130.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서수균, 권석만 (2005a).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 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서수균, 권석만 (2005b).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27-339.

서수균, 권석만 (2005c). 분노조절 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495-510.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용래, 원호택 (1996).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진술검사 한국판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96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1-2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173-1182.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Beck, A. T., & Weishaar, M. (1989). Cognitive Therapy. In A Freeman, K. M. Simon, L. E. Bentler, & H. Arkowitz(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Cognitive Therapy*(pp.21-36). New York: Plenum Press.

Chambers, L. (1999). *The relation among self-reported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anger verbal behavior and resting blood pressure.*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Dalhause University.

Deborah, A. (1999). *Cognitive distortions i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 dissertation

www.kci.go.kr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Deffenbacher, J. L., & Hogg, J. A. (1986). Irrational beliefs, depression, and ange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49-353.

DiGiuseppe, R., Leaf, R., Exner, T., & Robin, M. W.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ational/irr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 Therapy,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Douglas, F. B. (1991). Anger and irrational beliefs in violent inmate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 12,* 211-215.

Eckhardt, C. I., & Deffenbacher, J. L. (1995). Diagnosis of anger disorders. IN H. Kassinove(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27-48)*. Washington, DC: Tatlor & Francis.

Ellis, A. E. &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 (2nd). Impact Publishers.

Gentry, W. D., Chensney, A. P., Gary, H. E., Hall, R. P., & Harburg, E. (1982). Habitual anger-coping styles: Effect on mean blood pressure and risk for essential 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44*, 195-202.

Greer, S., & Morris, T. (1975). Psychological attributes of women who develope breast cancer: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 147-153.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22-226.

Ingram, R. E., & Kendall, P. C. (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Kwon, S.(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Lopez, F. G., & Thuman, C. W. (1986). A cognitive-behavioral investigation of among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45-256.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987.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In P. Kendall & S. Hollan(Eds.),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New York: Academic Press.

Rosenman, R. A. (1985). *Health consequences of anger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In M. A. Chesney and behavioral disorders(p.103-125).*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5-30).* New York: Hemisphere.

Spielberger, C. D., & London, P. (1982). Rage boomerangs, *American Health, 1,* 52-56.

www.kci.go.kr

Zwemer, W. A., & Deffenbacher, J. L. (1984). Irrational beliefs, anger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91-393.

원고접수일 : 2009. 2.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9. 4. 3.
게재결정일 : 2009. 4. 2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9, Vol. 28, No. 3, 695-708

The Mediational Roles of Primary and Secondary Anger-Thoughts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Aggression

Sugyu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dual cognitive mediation model (Seo & Kwon, 2005b, 2005c) assumes that primary anger-thoughts and secondary anger-thoughts may mediate sequentially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aggression. The present study verified the dual cognitive mediation model for 50 adolescents patients and 209 undergraduate-students clients,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of Baron and Kenny (1986). The results were: 1) primary anger-thoughts mediated partially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secondary anger-thoughts and 2) secondary anger-thoughts mediated perfectly between primary anger-thoughts and aggression. These results support the dual cognitive mediation model and suggest that secondary anger-thoughts seem to be the most proximal factor in the cognitive process of aggression provocation. This suggests an anger management program based on the dual cognitive mediation model can be used for adolescent patients.

Key words : dual cognitive mediation model, primary anger-thought, secondary anger-thought, irrational belie, aggression

www.kci.go.kr